성공사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김진영씨처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농민도 잘살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 4H 중앙경진대회 대통령표창 봉산농장 김진영씨를 찾아서 —

4월 23일(土) 오후 4시 30분— 청량리 역에서 안동행 열차에 올라탄 기자는 영주까지 4시간 30분 걸린다는 안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날아갈 듯 마냥 즐겁기만 했다. 차창 밖으로 산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고 멀리 유유히 흘러가는 산골풍경이며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싱싱하고 키 큰 미루나무 숲을 지나가는 빨간 샤츠를 입은 시골아이들, 이름 모를 산 모퉁이를 갓 돌아나온 버스의 꽁무니를 따라붙는 뽀얀 흙먼지… 그런 것들에 기자는 새삼 감탄하며 아름다운 우리 강토에 진한 애정을 느끼었다.

그런 생각들에 묻혀가다가 영주가 가까워졌다는 여객전무의 방송이 나오자 질문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고저 협회에서 준 기록을 들쳐보니 엄청나다.

77. 4. 15일 4H중앙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 1964. 2. 26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졸업
- 1967. 12. 29 / 경북도지사 표창
- 1973. 8. 15 / 새농민상 종합상(농협중앙회
- 1973. 17 / 우수모범 청년상(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 1973. 12. 21 / 농촌지도자연합회 경북도 회장 표창
- 1976. 11. 18 / 경북도지사 우수지도자상 표창
- 1977. 4. 15 / 4H중앙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경력》

- 1965. 6. 1 / 영주군 축산협동조합 축산기원
- 1968. 2. 25 / 영주군 축산협동조합 이사
- 1968. 10. 20 / 영주군 농촌지도소 정착지도사
- 1968. 7. 20 / 하망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1970. 2 / 영주군 농업협동조합 감사
- 1972. 4. 1 / 농촌지도자 연합회 영주군회장
- 1973. 10. 1 / 영주 청년회의소(J. C) 회장
- 1972. 4. 1~현재 / 4H기술교환농장 농장장
- 1976. 2. 11~현재 / 영주군 축산협동조합 조합장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즐기는 김진영씨〉

영주에 도착하자마자 봉산농장엘 들리려던 마음을 바꾸어 전화연락만 하고 근처에 숙소를 정하여 기사작성을 위한 작전을 짰다. 그만한 지위면 취재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니 커다란 몸집에 안경을 쓴 시골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우산을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커다란 손을 쑥 내민다.

—김진영입니다. 잘 오셨읍니다… 나가시죠.

맘씨 좋은 아저씨 타입이다.

밖은 언제부터인지 비가 촉촉히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 빗속에는 하늘빛 자가용「웨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작년에 샀읍니다 양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읍니다

차는 비가 내리는 영주읍을 빠져나가 봉산제1농장으로 신나게 달렸다. 차안에서 기자는 어떤 중요함을 느끼어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농민도 잘 살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한약방을 경영하시는 아버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진영씨는 농고를 졸업하고 뜻한 바 있어 농대 수의학과를 지원, 졸업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땅을 파겠느냐?」라는 주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영주 축협에 축산기원으로 취직을 했지만 가슴속에는 항상 「농민도 잘 살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꿈틀거려 1년만에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12만원으로 현 봉산제1 농장인 상망2리에 야산 1천 6백평을 구입하고 개간하면서 안동으로부터 120일령 레그혼을 120수 샀다. 양계를 시작한 것이다 66년 7 월의 일이다.

—땅을 개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테요?

기자의 질문에 김진영씨는 씩 웃는다. 고생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고 오히려 되 묻는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김진영씨는 개간을 위해 움막을 짓고 그야말로 손톱이 빠지도록 일했단다.

「부모가 고등학교만 보내 주어도 될 할텐데 대학까지 보내주었는데 사업지원까지 해 줘? 그럼 네 동생들은 어떻게 하고…」라며 아들의 의지를 키워준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의지로 1개월 후에는 산란을 시작하여 월 1만 4천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축협에 다닐 때 1만 2천원— 월급보다 많아 그는 자신을 갖고 수박도 심고 양잠도 하였다. 닭도 350마리로, 500마리로 늘렸다.

부업양계단지 조성이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일조시간이 짧아지자 환우를 했다. 그러자 털이 쑥쑥빠지더니 산란율이 푹푹 줄어들었다. 웬일인지도 모르고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 다시 산란을 시작하자 그는 사양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지조성이 필요함을 느끼고 사육규모를 1,000 수로 늘려 총 22가구를 모아 양계부업단지를 조성했다. 군 농협으로부터 160만원을 융자받아 계사를 짓고 모든 초생추, 약품 및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농가 호당 2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하였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마음을 다져 먹고 계속하는 일이라 그런지 조금씩 커져가는 농장을 보며 인간의 능력이란 참으로 무한정 이

란 느낌이 듭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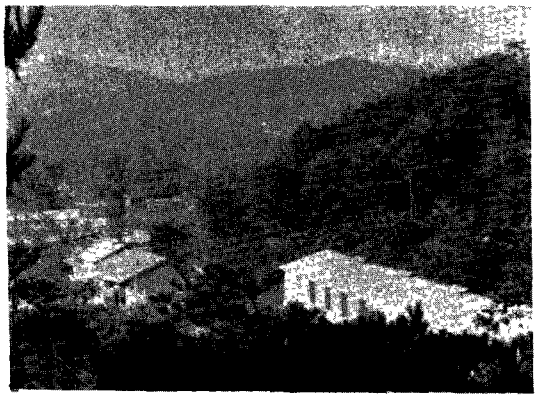
김진영씨 자신은 말을 안하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때에는 이미 「배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다르다」며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김진영씨를 따라왔다.

그러나 닭을 구입하는데 있어 많은 중간상인을 거치므로 나쁜 닭을 구입하게 되고 가격도 비싸진다는 것을 안 그는 여러 곳의 협력을 얻어 「바브콕」종계 1천수를 수입하고 부화기도 1대 설치했다. 허지만 68년 양계 불황때라 부화된 병아리는 팔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빚만 걸머지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김진영이 망하게 됐다고 하자 영주에서는 자금을 염출할 길이 막연하여져 집 식구들이 모두 자금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서울로, 관계기관으로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농대충신 정착대부금 100만원을 융자 받았다. 몇몇 뜻있는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도 받았다. 밀린 빚을 갚고 다시 부화를 하자 다행히도 경기가 회복하여 병아리는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게다가 개간지의 뽕나무등 각종 작물이 자라 갑자기 수입이 크게 늘어 났다. 부화기도 1대 더 증설했다. 양돈에도 손을 댔다. 부화된 병아리중 숫놈이나 약추는



〈봉산농장 전경〉

돼지에게 주고 돼지의 구비는 개간지 작물재배의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다각적인 영농과 끈질긴 노력 끝에 1만평을 더 확보하여 양계와 더불어 양돈, 양잠, 과수 등이 풍요롭게 자라는 봉산 농장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양계를 하다보니까 이젠 인근 마을에까지 기술지도를 나가게 되었읍니다. 제가 뭐 기술이 있겠읍니까? 다만 틈나는대로 외국의 전문서적과 국내 주요서적을 탐독하고 있어 질병없는 건강한 닭을 키우는데 자신도 모르게 기술이 몸에 밴 것이지요.

축산의 내일은 밝다. 젊은이들이 그 기수가 되야 한다.

김진영씨의 의욕은 대단하다. 자신의 영농과 함께 주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몸을 돌보지 않는다. 부실조합이었던 하망리농협의 조합장이 되어 조합부채는 모두 갚았으며 영주읍 단위조합으로 합병하는데도 큰 역활을 하였다.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농사를 하여 「돈을 번다」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돈」이란 배운사람들에게는 자칫 치사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립니다. 「돈」이란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생활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젊은 축산대학이나 농대출신들이 힘들더라도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돈」을 버는 방법으로 축산이상의 것은 없읍니다. 장래는 매우 밝지요…….

김진영씨는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젊은 기수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며 그 방면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봉산농장이 「4H기술교환농장」이 된 것도 「청년 회의소」를 맡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다. 지난 4월 4H 중앙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그 노력의 댓가의 일부인 것이다.

축산입국의 꿈이 서린 봉산종합농장

봉산농장의 하루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13대의 부화기에서 깨어난 병아리의 울음소리는 그야말로 「사업의 교향악」이다. 올 봄에는 영주읍 조와리 산 5번지에 9만평을 달하는 대지를 구입했다 봉산세2농장이 그것 이며 여기에 김진영 씨의 꿈을 담을 계획이다

종계장, 신축부화장신설, 비육사업, 과수, 원예… 문자그대로 봉산종합농장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화기애애한 봉산농장—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김진영씨가 직접 운전하는 자가용의 감촉은 매우 좋았다 그가 이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시오,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을 생각하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다. 차가 상망2리 봉산교회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조금 올라가자 봉산농장이 보여왔다 영주읍에서 3km— 여기가 그의 피와 땀 그리고 학술이 얼룩진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숙연해졌다 관리인들이 빗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관리인들에게 미안합니다 제대로 대우를 못해주어서…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사업시설을 완전히 구비하기 전까지는 참아야 한니다 시설투자에 인색하면 축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여 고생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사고 말하지요

(이 사람이 자신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조금만 참자고 말아나니…) 기자는 차에서 내리자 변소엘 간다고 하곡 슬쩍 관리인에게 대우를 물었다 관리인들은 웃으면서 다른데보다는 급여수당이 많으며 6개월마다 30%씩 올려준다고…. 숙소를 보니 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관리인 거의가 봉산농장 창설 당시부터 있던 사람이라는 것— 이는 서로가 이해하고 믿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의심하면 안됩니다.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양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가 묻는 말에 김진영씨는 단호하게 말한다

—해요 하면됩니다 ‥다만 양계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심하면 안됩니다 저는 다른 사업을 하나가 양계로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시요 닭한마리가 일 1개씩만 다 낳으면 만마리면 알이 만개입니다 사료효율을 높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을 연구하면서 사양하면 결코 양계가 위태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농촌운동에 힘쓰겠다.
그것이 보람이다

우리 주신계에도 점차 직원의 복지후생에 힘쓰는 사람이 늘어간다 고마운 일이다 김진영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직원을 위한 농장설계도 끝났고 자립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 분양해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영주에 사무소(가령위생연구소)를 설치하여 수의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경영의 합리적인 관리지도도 하겠다고 희망을 얘기했다

3시48분— 서울행 일차

김진영씨는 종일 내리는 빗속에서 굳은 악수를 해 주었다 따뜻하게 웃으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 하는데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김진영씨 처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다 그것은 어떤것이 의지있게 생활해가는 것인가를 교육시켜준 부모님의 강력한 영향때문일까? (태)